혁신도시 이전기관, 중대재해법 앞두고 '안전경영' 강화

관리시스템 재정립·설비확충…안전옴부즈만 도입
인력재배치·현장책임경영 강화…ESG혁신처 설치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안전'을 올해 화두로 내세웠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목표로 조직 개편과 직제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일부 기업들 사이에는 법 시행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지만, 공기업은 이런 혼란을 뒤로 하고 부담감을 안고 안전경영에 모범이 돼야 하는 입장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발전소에서 홀로 근무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재 문제가 공론화돼 제정에 속도가 붙었고,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전 "안전관리 역량 총동원"

한국전력은 안전보건처를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립했다. 인력, 조직, 예산, 제도와 운영 등 전방위의 사고예방체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해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고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전력설비 및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전사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한전은 최근 발생한 여주지사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대책을 발표, 조직 역량을 안전관리에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전 공사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한다.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한다.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한다.

전기공사업체 자율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전기공사업체 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 하도급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한전은 위해요소 원천 제거를 위해 안전 옴부즈만을 도입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된 안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각종 안전시스템 점검, 관련 제도 제·개정 평가 시행,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 분석을 실시한다.

인력을 재배치해 전국 251개 사업소에 안전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안전설비 확충, 공법 안전성 강화, 안전 기자재 구입 등에 중점 투입한다.

◇ 농어촌공사, 공사현장 안전 확보

농어촌공사는 근본적인 안전의식 개선과 일선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안전, 지속가능, 활력제고'의 가치를 중점으로 4개 분야 21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된 미래과제를 수립했다.

개보수와 배수개선사업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전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철저한 사업시행 및 시설관리로 공사의 모든 사업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총괄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실를 신설하고, 각 지역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현장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지역본부 내 건설현장 및 시설관리 안전 전담인력을 확충해 일선 현장에서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KDN,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한전KDN은 새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자신만의 사업영역을 공고히하면서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의 도약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사업영역 공고화 ▲안전관리 만전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지난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됐다.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경영진 현장 방문과 노사합동 안전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

◇한전KPS, 5본부 16처·실 조직 개편

한전KPS는 안전경영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4본부 1단 15처·실의 조직을 5본부 16처·실로 개편했다.

조직개편은 코로나 시대 이후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대응과 함께 내부 혁신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기존 사장 직속조직을 각 본부에 편제해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본부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재난안전실을 재난안전처로 격상해 발전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는 현장 근로자 안전 보호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본사 각 사업부서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더욱 체계화된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ESG혁신처를 설치해 정부 뉴딜사업과 함께 ESG 경영확대에 발맞춰 사회적 가치 실현,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한전KPS는 신안군, TUV-SUD Korea사와 '신안 해상풍력 유지보수를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홍연 한전KPS 사장, 박우량 신안군수, 서정욱 TUV-SUD Korea 대표. /한전KPS 제공

한전KPS,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신안군·TUVSUD사와 협약
전문인력 양성·인프라 지원

한전KPS가 신안 지역에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한전KPS는 신안군, TUV-SUD Korea사와 '신안 해상풍력 유지보수를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KPS는 해상풍력 유지보수 및 시험·평가 인프라 개발과 해상풍력 관련산업 육성, 지역주민 이익공유형 상생모델 개발 을 협약사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설비 유지보수에 특화된 우수인력과 자체 연수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신안군 지역에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설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전KPS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PS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비해 올해 해상풍력 등 친환경 그린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지속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신안 8.2GW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지보수 분야 인프라 구축을 전사적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한전KPS, 디지털 스마트 학습장비 지원

광주·전남교육청에 4억 전달
AI스피커·드론 교보재 구입

한전KPS는 광주·전남지역 학교에 디지털 스마트 학습장비를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KPS는 최근 전남교육청에 AI스피커 구입 지원금 2억원을, 광주교육청에 드론·태블릿PC 구입 지원금 2억원을 각각 전달했다.

지원금은 광주 특성화고 13개 학교와 전남 858개 초·중·고등학교의 스마트학습기기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태블릿PC와 원격학습에서 원어민 강사의 '직강 효과'를 발휘하는 AI스피커와 차세대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 교보재 등이 포함됐다.

한전KPS는 2020년 광주·전남교육청과 지역인재 양성·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5억원 규모의 태블릿PC를 지급, 정보취약계층 학생들의 원활한 원격학습을 지원했다.

한전KPS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사회 초·중·고교 지원사업을 비롯 전국 마이스터고교 학생들을 미래 기술명장으로 육성하는 'KPS-패러데이스쿨'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회사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황애란 기자

aT-한농연 전남도연합회
농수산식품산업육성 협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강도용 회장과 전주석 수석부회장 등 일행을 만나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국내외 급변하는 농어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와 국산 농수산식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호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및 한국농어민신문(사장 김정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산 농수산식품의 소비 촉진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수산식품 유통 선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강도용 회장 등과 만나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T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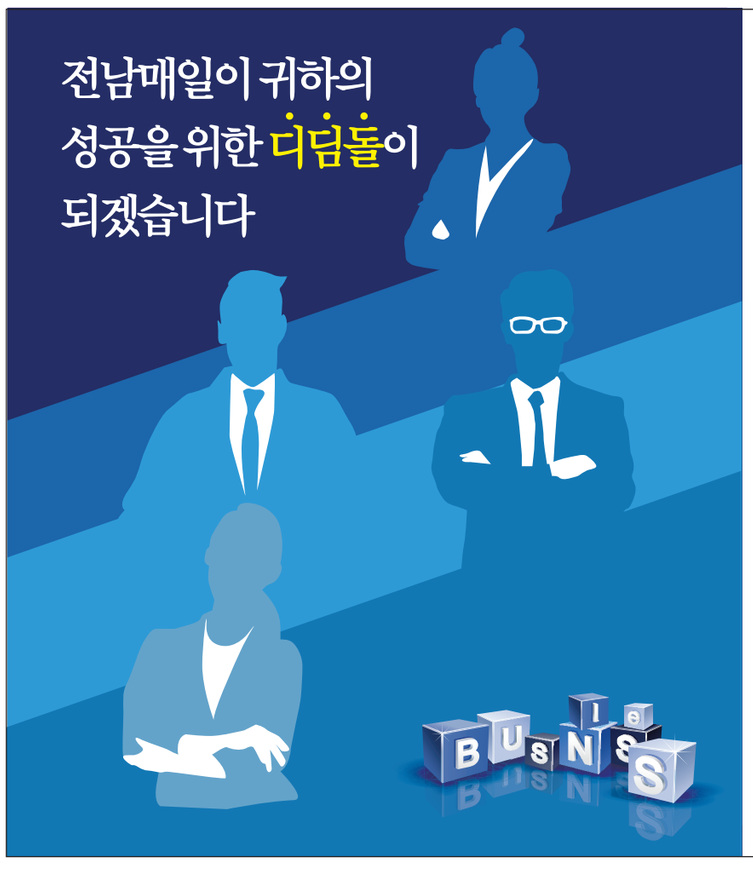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한수원
친환경에너지 개발 협력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친환경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사업개발 담당자들이 참석해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목표 이행 의지를 알리는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자원개발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2.0 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어민과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사 보유의 저수지, 담수호 등을 활용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밀한 협업으로 농어촌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지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접수기간
2021. 11 ~ 2022. 02. 18(금)

강의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

강의시간
월요일 19:00~ 20: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교육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1년 16강 과정)

수 강 료
350만원 (부가세포함)

접 수 처
전남매일 사업국
Tel. 062) 720-1011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 저명인사 초청 최상급 전문 강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